

2017년 9월 경찰간부 한국사 해설(9. 23 시행)

해설 : 해동한국사 신영식 교수

1.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유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 ② 충청북도 제천 점말 동굴에서 털코뿔이뼈가 출토되었다.
- ③ 강원도 양구 상무룡리에서 흑요석이 출토되었다.
- ④ 충청남도 공주 석장리에서 홍수아이가 출토되었다.

정답 : ④

④ 구석기 시대 인류화석인 홍수아이는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공주 석장리 유적은 남한에서 최초로 발굴된 구석기 시대 유적이다.

①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출토된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대표적인 전기 구석기 유물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과 서아시아 지역이 주먹도끼를 이용하고 동아시아 지역은 찌개를 주로 이용하였다는 구분법이 주류였으나,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견되어 기존의 구분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③ 강원 양구 상무룡리 유적은 구석기 중기 유적지로, 백두산 산 흑요석으로 만든 쯤돌날 몸돌이 출토되었다. ② 구석기 시대 유적인 충북 제천 점말 동굴에서는 털코뿔이 앞발 뼈에 사람 얼굴을 새긴 주술적 의미의 예술품이 발견되었다.

2. 한반도 청동기 시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
| (가) 유물로는 펜석기, 골각기 등이 있다. |
| (나) 무덤양식으로는 고인돌, 돌무지무덤, 돌널무덤 등이 있다. |
| (다) 미송리식 토기, 붉은 간토기 등의 토기가 제작되었다. |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 ②

(가) 펜석기와 골각기(뼈도구) 등의 도구를 만들어 사용한 시기는 구석기 시대이다.

(나) 청동기 시대에는 고인돌 및 돌널무덤, 돌무지무덤 등이 만들어졌는데, 이 중 고인돌은 지배층인 군장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돌널무덤은 지하에 돌로 상자 모양의 석관을 만들어 매장하는 방식으로, 개석식 고인돌의 구조와 유사하다. (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로 미송리식 토기, 팽이형 토기, 공귀리형 토기, 구멍부늜 토기, 송국리형 토기, 붉은 간 토기 등이 있다.

3. 고구려와 중국(수·당)왕조 간의 항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구려 영양왕이 북방의 돌궐과 연계하면서 말갈병을 보내 당나라의 요서 지방을 먼저

공격하였다.

②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은 살수에서 수나라의 군대를 크게 물리쳤다.

③ 당 태종은 친히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④ 당나라의 침략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정답 : ①

① 고구려의 영양왕은 598년 말갈 군대 1만여 명을 거느리고 수나라의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하였고, 이로 인해 수 문제·양제가 고구려를 침입하였다.

② 영양왕 때 수 양제의 침입을 을지문덕이 청천강 유역의 살수에서 막아내었다(612, 살수 대전) ③ 당 태종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였고 고구려는 국경의 여러 성이 함락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안시성을 중심으로 민·군이 협력하여 당군을 물리쳤다(645, 안시성 전투). ④ 고구려는 당나라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국경선에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631~647).

4. 아래의 왕대에 있었던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왕 14년 3월에 웅천주 도독 현창이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장안이라 하고 연호를 경운 원년이라 하였다. 무진주, 완산주, 청주, 사벌주 등 4개 주의 도독과 국원경, 서원경, 금관경의 사신, 그리고 여러 군현의 수령들을 협박해 자기편으로 삼았다.

① 왕권의 강화를 위하여 갈문왕제를 폐지하였다.

② 도의를 통해 당으로부터 남종선이 도입되었다.

③ 국학을 설립하여 유교 정치이념을 수용하고자 하였다.

④ 기밀 업무를 담당하는 집사부가 설치되었다.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822년에 일어난 ‘김현창의 난’에 대한 내용으로, 신라 하대인 헌덕왕 재위기(809~826)의 사실이다.

② 선종은 통일 전후에 신라에 수용되었으나, 널리 퍼지지는 못하였다. 784년에 도의가 본격적으로 남종선을 배우고자 당나라에 간 이래 해소, 해철, 무염 등이 뒤를 이었고, 이들 선사들은 820년대 초에 처음 귀국한 도의를 뒤따라 차례로 귀국하며 신라에 남종선이 도입되었다.

① 태종 무열왕은 직계자손의 세습제를 확립하여 왕권을 안정시켰으며, 왕의 동생들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던 갈문왕 제도를 폐지하였다. ③ 신문왕은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하기 위한 국학을 설립(682)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 집권적 관료 정치가 발달하면서 왕권은 더욱 강화되었다. ④ 진덕여왕 5년(651) 기존의 품주가 국가의 기밀사무를 맡은 집사부와 재정을 관장한 창부로 분화되었다.

5. 발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무왕 대에는 동북방으로 진출하여 북만주 일대와 요동을 장악하였다.
 (나) 문왕 대에는 지방통치체제를 5경 15부 62주로 완비하였다.
 (다) 선왕 대에는 당의 3성 6부 체제를 받아들여 중앙 통치기구를 정비하였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 ①

(가) 무왕 대에는 동북 지방으로 진출하여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으나,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켜 요동 지역으로 진출한 것은 9세기 전반의 선왕 대이다. (나) 지방 체도를 5경 15부 62주로 완비한 것은 9세기 선왕 대이다. (다) 발해 문왕 대 당으로부터 수용한 3성 6부 체제의 중앙 관제를 유지하면서, 발해에 맞게 독자적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6. 고려 광종 대에 시행된 정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가) 본래 양인이었으나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풀어주는 노비환천법을 시행하였다.
 (나) 중국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다) 각 주현 단위로 공물 등을 거두는 주현공부법을 시행하여 국가 수입의 증대를 꾀하였다.
 (라) 빈민과 행려자의 구호를 위해 광학보를 설치하였다.
 (마) 지배층의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 ① (가), (나) ② (다), (라) ③ (가), (라) ④ (라), (마)

정답 : ③

(가) 광종 7년(956) 본래 양인이었으나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환량(還良)시켜 주는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노비환천법은 노비안검법을 통해 해방된 노비가 원주인을 모독하거나 언행이 불량한 경우 다시 천민으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고려 성종 때 제정되었다. (라) 광학보는 고려 정종 때 설치된 것으로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치한 일종의 장학 재단이었다.

(나) 고려 광종은 후주의 귀화인 쌍기의 건의를 수용하여 새로운 관리 등용제도인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다) 주현공부법은 949년(광종 원년)에 각 주현 단위로 조세·공물의 액수를 정하여 징수하는 제도였다. 주현공부법은 중앙 집권과 국가 재정 확보의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마) 광종은 지배층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중국식 관복제를 바탕으로 자·단·비·녹색의 4공복제를 제정하였다.

7. 백제를 정벌한 소정방이 쓴 평제문이 있어 ‘평제탑’이라고 불리기도 한 탑은 무엇인가?

- ① 미륵사지 석탑 ② 감은사지 3층 석탑
 ③ 정림사지 5층 석탑 ④ 무량사 5층 석탑

정답 : ③

③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복조탑의 구조를 석재로써 변형하여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탑으로서, 백제 멸망 후 1층 탑신 사방에 소정방의 대당평백제국비명(평제문)이 새겨져 있다.

①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이다. 미륵사 중앙에 목탑을 세우고 동서로 각각 석탑을 두었는데, 현재 남아 있는 미륵사지 석탑은 그중에 서탑에 해당한다.

② 감은사지 3층 석탑(682)은 신문왕 대의 호국 사찰로서 감은사와 함께 세워졌다. 쌍탑 형식으로서 통일된 새로운 국가의 힘찬 건설이라는 장중한 의지의 표현이 담겨 있다. ④ 무량사 5층 석탑은 고려 시대 때 부여에서 축조되었으며, 백제의 양식을 계승한 석탑이다.

8. 고려시대 중앙정치기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정책 심의 결정기구로서 중서문하성을 두었고, 문하시중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중서문하성은 2품 이상의 고관인 재신과 3품 이하의 낭사로 구성되었다.

② 중서문하성과 더불어 국가 중추기구로서 군사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중추원이 있었다. 중추원은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승선과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추밀로 구성되었다.

③ 고려의 독자성을 띠는 중앙정치기구로는 식목도감과 도병마사가 있었다. 식목도감은 법제·격식문제를, 도병마사는 국방문제를 관장하였다.

④ 정치의 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어사대가 있었다.

정답 : ②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② 중서문하성과 함께 고려의 핵심 기구인 중추원은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추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승선으로 구성되었다.

① 최고 정책 결정 기구로서의 중서문하성은 종1품의 문하시중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2품 이상의 재신과 간쟁과 봉박을 담당하는 3품 이하의 낭사로 구성되었다. ③ 고려의 독자적 기구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었다. 도병마사는 2품 이상인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대개 2품 이상이었던 중추원의 추밀이 함께 참여하여 국방 문제를 비롯한

대외적인 국가 중대사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식목도감 역시 재추 합의기구로 대내적인 법제 및 격식을 담당하였다. ④ 어사대는 관리에 대한 비리를 규찰하고 감찰하는 역할과 풍속 교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어사대의 관원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이라고 불리면서 간쟁과 봉박의 업무를 담당하고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9. 우리나라에서 활약한 승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원효는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종파간의 대립극복에 노력하였고 화엄사상에 입각하여 화엄일승법계도를 만들었다.
 (나) 의상은 진골 출신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관음신앙과 함께 아미타신앙을 주요 신앙으로 삼았다.
 (다) 지눌은 독경, 선 수행, 노동에 힘쓰자는 개혁운동인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고 천태종을 발전시켰다.
 (라) 의천은 교종 중심의 교선통합을 강조하였고, 무신정권의 보호를 받았다.
 (마) 보우는 중국 천태종 16대 교조로 중국에서 명성을 떨쳤다.
 (바) 혜심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며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여 장자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사) 서산대사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일본으로 건너가 전쟁 중에 사로잡힌 우리 포로들을 송환해 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②

(나) 진골 귀족 출신인 의상은 관음 신앙과 함께 아미타 신앙 체계를 화엄경설을 바탕으로 정립하여 화엄 교단의 중심 신앙으로 전개하였고,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바) 수선사 제2세인 혜심은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며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여 장자 성리학 수용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가) 원효는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들과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 의식을 극복하려는 『십문화쟁론』을 통해 화쟁 사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한 승려는 의상이다. (다) 조계종 계통의 승려인 지눌은 명리에 집착하는 당시 불교계의 타락을 비판하고 순천 송광사(수선사)에서 이를 개혁하려는 실천 운동으로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수선사 결사 운동은 선종 중심의 불교 개혁 운동이었으며,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예불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자고 주장하였다. (라) 의천은 교관겸수와 내외겸전을 제창하였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의천이 활동했던 시기는 문벌귀족 집권기이다. (마) 광종 대 남중국에 파견된 의통은 중국 천태종 16대 교조가 되어 명성을 얻었다. 고려 시대 승려 보우는 공민왕 대 불교계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9산 선문의 통합을 주장하였고, 조선 시대 승려 보우는 명종 대 문정왕후의 신임을 얻어 중용되었다. (사) 임진왜란 이후 일본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국교를 재개하고자 하였고, 이에 조선은 막부 사정을 알아보고, 전쟁 중 잡혀간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 사명대사를 파견하여 일본과 강화한 후 조선인 포로 7,000여 명을 데려왔다(1607).

10.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인물을 등용하여 개혁을 단행하고자 했던 왕대에 있었던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요사이 기강이 크게 무너져 사람들이 탐욕스럽고 포악하게 되어 종묘, 학교, 사원 등의 토지와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와 노비를 권세가가 거의 다 빼앗아 차지하고는, 혹 이미 돌려주도록 판결난 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혹 양민을 노예로 삼고 있다. (중략) 이제 도감을 두어 고치도록 하니 잘못을 알고 스스로 고치는 자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나, 기한이 지나 일이 발각되는 자는 엄히 다스릴 것이다.’

- 고려사 -

- ① 만권당을 지어서 조맹부, 이제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일본정벌을 위해 정동행성을 설치하였으나, 부속기구인 이문소의 작폐가 심하였다.
- ③ 원나라 북화의 영향을 받아서 왕이 직접 천산대렵도를 그렸다.
- ④ 성균관을 부흥시켜 순수한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하였고, 『전주금경록』 등의 역사책이 왕명으로 편찬되기도 하였다.

정답 : ③

제시된 사료는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설치된 ‘전민변정도감’에 대한 내용으로, 공민왕 대의 사실이다.

③ 공민왕이 그려졌다고 알려진 「천산대렵도」는 원대 북화의 영향을 받아 필치가 뚜렷하고 세밀한 표현에 능하다.

① 충선왕은 원나라에 학문 연구소인 만권당을 설치하여 고려의 이제현과 원의 조맹부 등의 학자들이 활발하게 학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일본 정벌을 위한 정동행성 설치
는 충렬왕 대에 설치되었으나, 일본 원정이 실패한 뒤에는 내정 간섭 기구로 작용하였고 부속기관인 이문소의 불법적 사법행위로 폐단이 심하였다. 공민왕은 빈민정책의 일환으로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④ 공민왕은 최고 학부인 성균관을 부흥시켜 순수한 유교 교육 기관으로 개편하고 유교 교육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전주금경록』은 충렬왕 대 정가신이 지은 역사서로, 현존하지는 않는다.

11. 위 간섭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원배들은 고려국을 없애고 고려를 원의 직할령으로 만들자는 주장을 하였다.
- ② 원의 부마국이 되었으며, 관제가 개편 및 격하되었다.
- ③ 원의 공녀 요구에 따라 결혼도감을, 매를 징발하기 위해 응방을 설치하였다.
- ④ 감찰기구로 반전도감을 설치하였으며, 다루가치를 파견하여 조세 징수와 내정을 간섭하였다.

정답 : ④

④ 반전도감은 충숙왕이 원나라에 들어갈 때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서로, 다양한 특산물을 징발하였다. 다루가치는 원에서 파견된 감찰관으로, 점령한 지역에서의 조세 징수와 내정 간섭 업무를 담당하였다.

① 원 간섭기 부원배 세력들은 ‘입성책동(立省策動)’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원나라의 영토 내에 설치된 여러 행성을 고려 내에도 설치하여 고려 왕조의 독자적 운영을 정지하고 원의 체제로 개편하자는 논의이다. ② 원 간섭기 고려의 왕은 원의 공주와 결혼하여 원 황제의

부마(사위)가 되었다. 이와 함께 충렬왕 때에는 왕실의 호칭과 격이 격하되었고, 증서분하성과 상서성을 합쳐 첨의부로, 6부를 4사로 통합하는 등 관계 개편 및 격하가 이루어졌다. ③ 원 간섭기에는 원의 공녀 요구에 따라 공녀 선발을 위한 결혼도감을 설치하였고, 해동청(매) 징방을 위한 응방을 설치하였다.

12. 고려 시대 여성의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차등적으로 분배되었다.
- ② 아들이 없는 경우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 ③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 ④ 제사는 반드시 장남이 지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정답 : ③

③ 고려 시대에는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생활하는 솔서혼,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와서 생활하는 혼인 형태인 남귀여가혼이 적지 않았다.
①, ② 고려 시대에는 자녀 균분 상속이 이루어졌으며,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이 여성 호주로서 제사를 지냈다. ④ 고려 시대에는 자녀가 윤회봉사를 지냈다. 장남이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13. 고려 후기에 편찬된 역사서와 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
| <p>(가) 『해동고승전』 - 각훈이 왕명으로 편찬하였으며 교종의 입장에서 불교사를 정리하였다.</p> <p>(나) 『제왕운기』 - 충렬왕대 이승휴가 기록한 서사시로 7언시 또는 5언시로 되어 있고 단군신화와 발해를 기술하였다.</p> <p>(다) 『삼국유사』 - 충렬왕대 일연이 저술한 사찬사서로 불교적 입장에서 야사체 혹은 기사본말체로 고대 설화 등을 수록하였다.</p> <p>(라) 『사략』 - 이제현이 고려 태조에서 숙종 때까지 각 국왕들의 치적을 성리학적 명분론에 따라 서술하였다.</p> |
|--|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 ①

(가) 『해동고승전』은 무신 정권기인 고종 대에 교종 승려인 각훈이 왕명에 따라 편찬(1215)하였으며, 교종의 입장에서 불교사를 정리하였다. (나) 충렬왕 대 이승휴가 저술한 『제왕운기』는 상권에서 신화 시대에서 원의 흥기에 이르기까지의 중국 역사를 7언시로 다루었다. 하권에서는 단군부터 고려 충렬왕까지 우리 역사를 5언시로 서술하였으며 단군신화를 기술하였고, 처음으로 발해를 우리 역사로 파악하였다. (다) 충렬왕 대 승려 일연이 저술한 역사서인 『삼국유사』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한 기사본말체의 역사서이다. (라) 이제현의 『사략』은 고려 태조에서

숙종 때까지의 역대 임금의 치적을 정리하였으며, 정통 의식과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적 사관에 입각하여 편찬되었다.

14. 아래의 자료의 ㉠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처음에 ㉠와(과) 남은은 임금을 날마다 뵈고 요동을 공격하기를 권고하고 진도를 익히게 하는 고로 그 급함이 이와 같았다. 이에 앞서 좌정승 조준이 휴가를 청하여 집에 돌아가 있으니, ㉠와(과) 남은은 조준의 집에 찾아가서 말하기를 “요동을 공격하는 일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공은 다시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 ① 국왕 중심의 정치 운영체제를 지향하였다.
- ②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등을 저술하였다.
- ③ 『불씨잡변』을 통해 불교를 비판하였다.
- ④ 무인정사(1398) 때에 이방원 일파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의 ㉠는 요동 정벌을 주장한 ‘정도전’이다.

- ①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의 서술을 통해 권력의 중심이 총재(冢宰), 즉 재상에게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세습 군주제 하의 왕은 반드시 현명하다는 보장이 없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왕이 만민을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 ②, ③ 정도전은 최초의 사찬 법전인 『조선경국전』, 정치 조직의 초안을 작성한 『경제문감』, 유학의 입장에서 불교를 비판한 『불씨잡변』 등 다양한 저술을 남겼다. ④ 태조대에 정도전을 중심으로 대외적으로 영토 확장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사병을 혁파하기 위해 요동 정벌을 추진하려 하자, 이방원은 이에 반발하면서 1차 왕자의 난(무인정사, 1398)을 일으켜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을 습격하여 살해하였다.

15. 아래의 사건이 있었던 국왕 통치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덕응이 자백하기를 “평소 대운·소운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조심하였는데, 그들과 함께 모반을 꾸민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계속 추궁하자 그는 “윤임이 제게 이르되 경원대군이 왕위에 올라 윤원로가 권력을 잡게 되면 자신의 집안은 멸족될 것이니 봉성군을 옹립하자고 하였습니다.”라고 실토하였다.

- ① 이이의 활약으로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이라는 편액이 내려졌다.
- ② 대마도주와 계해약조가 수립되어 우호적 관계의 틀이 마련되었다.
- ③ 현량과 실시와 경연 강화 등 조광조의 개혁정치가 시행되었다.
- ④ 황해도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된 임꺽정의 난이 진압되었다.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대운과 소운의 대립으로 일어난 ‘을사사화’에 대한 내용으로, 명종 재위기(1545~1567)의 사실이다.

④ 임궽정은 경기도 양주의 백정 출신으로 16세기 당시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수탈에 맞서 도적단을 조직하였다. 임궽정은 명종 때 황해도로 중심으로 경기, 강원, 평안, 함경도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관군에게 진압되었다.

① 백운동 서원이 사액을 받아 소수서원이 된 것은 명종 대가 맞으나, 백운동 서원의 사액을 건의한 인물은 퇴계 이황이다. ② 계해약조를 맺어 세전선 50척, 세사미두 200석으로 일본과의 무역량을 제한한 것은 세종 대의 일이다(1443). ③ 조광조 등의 사림파가 현량과 실시, 경연 강화, 위훈 삭제 등을 주장하며 개혁정치를 시행한 것은 중종 대의 일이다.

16. 조선시대에 편찬된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일반 관료와는 달리 국왕은 사초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으며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였다.

② 실록 편찬을 위한 자료로는 사초와 시정기 등이 있었고, 사초 등 기록물에는 사관의 주관적인 의견을 넣을 수 없었다.

③ 세종 이래 사고가 정비되어 춘추관을 비롯해 충주사고, 성주사고, 전주사고 등 4대 사고가 운영되었다.

④ 실록 편찬에 사용된 사초는 별도로 묶어 등록을 만들어 보관하였다.

정답 : ③

③ 『조선왕조실록』은 한 왕대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국초부터 편찬된 역사서이며, 이를 보관하는 사고는 춘추관 및 충주·전주·성주의 4곳이었으나, 임진왜란 이후로는 춘추관과 태백산·오대산·정족산·적상산의 5대 사고에 실록을 보관하였다.

① 사초(史草)는 사관이 기록한 국왕의 발언과 행동 등이며, 사초와 시정기는 사관 이외에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었다. ② 시정기(時政記)는 업무일지 성격의 기록물이며, 국왕이 승하하게 되면 춘추관 실록청에서는 사관들이 기록한 사초(史草)와 각 관청의 일기(등록), 업무일지 성격의 시정기를 모두 모아서 실록을 편찬하였다. 사관들이 기록한 사초에는 사관의 의견이라는 것을 밝히고 사관 개인의 의견을 넣을 수 있었다. ④ 실록이 편찬된 이후 세초(洗草) 작업을 거치는 데, 이는 사초나 초고들을 파기하던 제도로 사초의 유출을 막고, 저술된 실록에 대한 시비의 소지를 예방, 정파간의 분쟁에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한 제도였다.

17. 다음 중 아래의 논쟁에 참여한 학자의 저술이 아닌 것은?

4단은 맹자가 실천도덕의 근거로 삼은 측은지심·수오지심·사양지심·시비지심을 말하며, 7정은 『예기』, 『중용』에 나오는 희·노·애·락·애·욕·오를 말한다.

① 『전습록변』

② 『이향견문록』

③ 『심경』

④ 『이학통록』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퇴계 이황의 4단 7정론이다. 이황은 학문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 매우 유연한

태도를 취했는데, 59살이 되던 해에 33살의 어린 기대승과 8차례에 걸친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단(四端) 및 칠정(七情)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논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황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자신보다 한참 어린 나이인 기대승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기도 하였다.

② 『이향건문록』은 중인 유재건이 철종 13년(1862)에 중인층 이하 인물들의 행적을 수록하여 19세기 이후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을 상승시켜 가던 중인의 입장을 표현하였다. 이 책은 사대부가 아니면서 향리에 묻혀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려는 취지에서 간행되었다.

① 이황은 주자 성리학의 관점에서 양명학을 비판하고 이단으로 간주하였으며, 양명학의 경전인 『전습록』을 비판하는 『전습록변』을 저술하였다. ③ 이황은 진덕수의 저서인 『심경』을 중시하여 『심경후론(心經後論)』을 저술하였다. 이를 통해 『심경』의 비중을 사서(四書)와 『근사록』에 못지 않게 존중함을 밝혔다. ④ 이황은 주자를 비롯한 송, 원, 명나라의 성리학자들의 행장·전기·어록 등을 저술한 『(송계원명)이학통록』을 저술하였다.

18. 조선 후기 정치 상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조 대에는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며 붕당 간의 견제가 이루어졌다.
- ② 숙종 대에는 수차례의 환국을 거친 결과, 노론이 득세하였다.
- ③ 경종 대에는 신축년(1721)과 임인년(1722)에 걸쳐 수많은 노론이 제거되었다.
- ④ 영조 대에는 이인좌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탕평파를 육성하여 준론 탕평을 시행하였다.

정답 : ④

④ 영조는 ‘이인좌의 난’의 발생 원인을 노론 세력만으로 구성하였던 폐쇄적 인사 정책 때문으로 보았다. 이후 노론과 소론을 막론하여 당파심이 강한 자를 제거하고 붕당을 없애자는 자신의 논리에 동조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는 완론 탕평을 추진해 나갔다. 붕당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명확히 가리는 준론 탕평은 정조 대 시행되었다.

① 인조반정 이후 서인과 남인이 기본적으로 서로의 학문적 입장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 비판적인 공존 체제를 이루었다. ② 숙종 대에는 주도하는 붕당과 견제하는 붕당이 서로 교체됨으로써 정국이 급격하게 전환하는 환국이 나타났으며, 세 차례에 걸친 환국의 결과 노론이 득세하였다. ③ 신임사화는 경종 대인 신축년(1721)과 임인년(1722) 두 해에 걸쳐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노론은 연잉군(후의 영조,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곧 충역시비로 번지게 된다. 이로 인해 노론 4대신(이이명, 이건명, 조태채, 김창집)이 소론의 공격을 받고 극형을 당하게 되었다

19. 아래 자료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청나라에 군신의 예를 지킬 것
- 명나라의 연호를 폐하고 관계를 끊으며, 명나라에서 받은 고명, 책인을 내놓을 것
- 조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 및 여러 대신의 큰아들을 심양에 인질로 보낼 것
- 청 황제의 생일, 중국 황후, 황태자의 생일, 정조, 동지, 경조 등의 사절 파견은 명나라 예에 따를 것
- 명나라를 칠 때 출병을 요구하면 어기지 말 것

- ① 위 자료는 병자호란에 관련된 것으로, 인조가 청 황제에게 항복의식으로 삼궤구고두례를 행하였다.
- ② 인조와 봉림대군은 강화도로 가던 중 청군에 의해 길이 막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 ③ 이후 청에 억류된 포로 중 정절을 잃은 부녀자에 대한 처리 문제가 대두되었다.
- ④ 이후 청에 대한 적개심으로 북벌론이 제기되었다.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병자호란 이후 청과 체결한 강화 조약의 내용이다.

②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봉림대군, 인평대군과 비빈(妃嬪)은 강화도로 보내었으며,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후퇴하여 항거하였으나 40여 일만에 항복하였다.

① 인조가 청 황제에게 항복 의식으로 세 번 절하고 한번 절할 때 마다 세 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궤구고두례(三跪九叩頭禮)’를 행하였다. ③ 병자호란 중 청은 피난 중인 사대부 집안의 부녀자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이후 포로가 되었다가 송환된 부녀자들을 환향녀(還鄕女)라고 하였는데, 이들이 정절을 잃고 돌아왔다 하여 가족들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고, 아내와의 이혼을 청원하는 사대부의 상소가 올라오기도 하였다. ④ 병자호란 이후 겉으로는 청과 군신 사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은밀하게 국방에 힘을 기울여 청에 대한 정벌을 준비하며 북벌론을 주장하였다.

20. 아래의 자료와 관련된 인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실용과 허자의 문답형식을 빌어 지금까지 믿어 온 고정관념을 상대주의 논법으로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지구 자전설을 주장하고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 다른 별들에도 우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등 파격적인 우주관을 피력하였다.

- ① 중상학과이지만 농업개혁론으로 군전제를 주장하였다.
- ② 『의산문답』에서 성리학의 극복이 부국강병의 요체라고 주장하였다.
- ③ 『사변록』을 지어 성리학을 비판하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리기도 하였다.
- ④ 『임하경륜』에서는 놀고먹는 선비들이 생산활동에 종사할 것을 역설하고 성인남자들에게 2결의 토지를 나누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담헌 홍대용의 『의산문답』에 대한 내용이다.

③ 『사변록』을 저술하여 주자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주자 일변도의 해석으로는 육경의 본뜻을 헤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사문난적으로 몰린 인물은 박세당이다.

①, ④ 홍대용은 『임하경륜』을 저술하여 놀고 먹는 양반을 비판하며 이들의 생산 활동 참

역을 주장하였으며, 성인 남성들에게 2결의 토지를 지급하고 병농일치의 군대를 조직할 것을 제시하는 군전제를 주장하였다. ②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유학자들이 과학적 연구를 도외시하고 허례허식만 추구해왔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1. 아래 자료의 배경이 된 시기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박종경은 어떤 인물이기애 요직을 몇대로 주무르고 권력을 남용하여 재물을 탐하고, 사방에 심복을 심어 만사를 제 마음대로 하려 합니까? 외척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사, 재정, 군사, 시장 운영의 권한은 물론, 비변사와 주교사의 권한까지 모두 장악하여 득의양양해 하며 왼손에 칼자루를 오른손에 저울대를 쥔 듯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습니다.

- ①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기도 하였다.
- ② 이 시기에는 몇몇 유력 가문에 권력이 집중되었는데, 그 중에는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의 외척 가문이 있었다.
- ③ 이 시기에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는데, 기해박해와 병인박해가 있었다.
- ④ 서북인에 대한 차별로 인해 반란이 발생하였다.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순조 재위기(1800~1834) 당시 세도가였던 박종경을 비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세도 정치기의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③ 기해박해(1839)는 헌종 때, 병인박해(1866)는 고종 때의 사실이다. 순조 때에는 신유박해(1801)가 일어났다.

① 효명세자는 순조 27년(1827) 대리청정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고 형옥(刑獄)을 신중하게 하는 등 개혁 정치를 시도하였다. 그는 척신 세력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려 했으나 4년 만에 갑자기 죽음으로써 개혁은 실패하였다. 효명세자 사후 김조순 가문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권력 집단을 재정립하였다. ② 순조는 정조에 의해 선택된 김조순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고, 이후 김조순을 중심으로 하는 안동 김씨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는 조만영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아들였으므로 이후 풍양 조씨의 일족이 대거 정계에 진출하였다. 이들은 안동 김씨 일파와 세력 투쟁을 벌였고, 8살의 나이에 헌종이 즉위한 후에는 조만영의 동생 조인영을 중심으로 풍양 조씨가 한때 정권을 장악하였다. ④ 1811년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에 대한 설명이다. 홍경래는 몰락한 양반 출신으로 매관매직에 반발하여 난을 일으켰으나, 서북민에 대한 지역적 차별과 과도한 수탈에 불만을 품은 상공업자와 노동자가 대거 참여함으로써 청천강 이북 지역을 5개월간 장악할 수 있었다.

22. 조선전기 토지제도의 변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진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양왕 3년에 전시과를 시행하였다.
- ② 세습전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관리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는데 이를 시정하

고자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 ③ 직전법이 시행되면서 수신전과 홀양전을 폐지하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었다.
- ④ 직전법 시행 이후 수조권을 받은 관리가 과다하게 농민을 수탈하는 일이 잦아졌는데 이를 막고자 성종 때에 관수관급제를 시행하였다.

정답 : ①

- ① 공양왕 3년(1391) 당시 사회 모순의 근원인 문란한 토지 제도를 바로잡고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전법을 제정하였다.
- ② 세조 대 직전법을 제정하여 전직 관리에게 지급하였던 토지 및 수신전, 홀양전을 모두 몰수하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③ 세습전(수신전, 홀양전, 공신전)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관리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게 되면서, 신진 관료에게 지급할 수조지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조 대 직전법이 시행되었다. ④ 직전법 실시 이후 경제적 기반 상실을 우려한 관리들이 공법 규정액을 초과하여 거두어들이는 경우가 발생하자, 성종은 지방 관청이 관리의 수조권을 대행하는 관수관급제를 실시(1470)하였다.

23. 조선 후기 경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세를 수취하는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시정하고자 양척동일법을 시행하였다.
- ② 정부는 농민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연분9등법을 지킴도록 하였다.
- ③ 대동법 시행으로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 ④ 백성들의 군포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에 2필씩 받던 군포를 1필로 감하였다.

정답 : ②

- ② 조선 전기부터 시행된 전세는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 징수하였다. 전세액을 정하는 기준을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 해마다 달라지는 작황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차별을 두었다. 하지만 비옥도와 풍흉 정도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전세액은 실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질 수 없었다. 따라서 실제 전세액은 최하 등급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연분9등법의 경우 최하 등급으로 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전세 징수를 공정하게 하고 국가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1635년(인조 13) 영정법을 제정하였다.
- ③ 조선 후기 전세를 수취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농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 등급에 따라 자(척, 尺)를 달리하는 수등이척제(遂等異尺制)를 폐지하고 같은 자로 측량하는 양척동일법을 시행(효종 4, 1653)하였다. ④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어용 상인이 나타났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공인이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농민도 대동세를 내기 위하여 토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쌀, 배, 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④ 조선 후기 군역의 부담이 과중해지자, 농민은 도망가거나 노비나 양반으로 신분을 바꾸어 군역을 피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이에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마침내 균역법(영조 26, 1750)이 시행되었다. 이로부터 농민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24. 아래 자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천하의 뽕뽕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삼강이 그 수위에 있으니, 실로 삼강은 경륜의 큰 법이요 일반 가지 교화의 근본이며, 원천입니다. (중략) “간혹 훌륭한 행실과 높은 절개가 있어도, 풍속 습관에 옮겨져서 보고 듣는 자의 마음을 흥기시키지 못하는 일도 또한 많다. 내가 그 중 특별히 남달리 뛰어난 것을 뽑아서 그림과 찬을 만들어 중앙과 지방에 나누어 주고”....(이하 생략)

- ① 연장자와 연소자,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를 강조한 책이다.
- ② 어린이가 지켜야 할 예절을 기록한 책이다.
- ③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녀의 행실을 모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붙여 만든 책이다.
- ④ 『주자가례』에 대한 제가의 이론을 엮어 편찬한 책이다.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조선 세종 대 편찬된 대표적 윤리서인 『삼강행실도』의 내용 중 일부이다.

③ 『삼강행실도』는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고금의 서적에 실려 있는 것을 모두 찾고 열람하여 모범이 될 만한 충신 112명, 효자 110명, 열녀 94명을 뽑아서 전면에 그림을 그리고 후면에 사실을 기록하고 설명을 붙인 윤리서이다.

① 종종 때 진행된 『이륜행실도』에 대한 내용이다. ② 『동몽수지』에 대한 내용으로 어린이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와 예절을 적은 수신서이다. 『동몽수지』는 고려 후기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 시대에 와서 아동 교육용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④ 17세기 조선 예학의 대가로 불렸던 김장생의 『가례집람』에 대한 내용이다. 『가례집람』은 김장생이 주자의 『가례』에 제가의 설을 이끌어 주석을 덧붙인 것으로 그 방법은 『주자가례』의 순서에 따라 해설을 하는 것이었는데, 중국 및 우리나라 여러 학자들의 설을 참고로 보완하고 자신의 견해도 첨부하였으며, 속제까지 수록하여 『주자가례』의 주체적인 보완을 도모한 저술이다.

25. 1871년에 발생한 신미양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발단이 되어 발생하였다.
- ② 어재연을 비롯한 조선군이 광성보에서 항전하였다.
- ③ 로즈 제독이 이끄는 군대가 강화도를 공격하였다.
- ④ 이후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에 척화비가 세워졌다.

정답 : ③

③ 1866년 9월에 일어난 병인양요에 대한 내용이다. 병인박해를 구실로 프랑스는 극동 함대 사령관 로즈(Roze) 제독이 이끄는 7척의 군함을 파견하여 강화읍을 점령하고 서울로 진격하려 하였다.

①, ③, ④ 1866년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1871년 미국 함대가 강화도에 침입하였다(신미양요). 이 당시 어재연이 이끈 조선군은 광성보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한때 광성보를 점령하였던 미군은 조선 군민의 강력한 저항에 버티지 못하고 물러갔다. 이와 같이 미국의 침략을 물리친 조선 정부는 서양과의 통상 수교를 반대하는 정책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웠다.

26. 갑신정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불전쟁 때문에 조선에 주둔하던 청군 일부가 베트남으로 이동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
- ②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파 인사들이 주도하였다.
- ③ 1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개혁정강을 발표하였다.
- ④ 정변 이후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과 일본의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였다.

정답 : ④

④ 갑신정변 이후 청과 일은 텐진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는 조선에서의 청·일 양국 군대의 철수, 장래 조선에 변란이나 중대 사건이 일어나서 청·일 어느 한쪽이 파병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릴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일 전쟁 이후 체결된 것으로 여기에서는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일본이 조선에 침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①, ② 1884년 베트남 문제로 청과 프랑스가 대립하자, 청은 절반의 조선 주둔군을 베트남 전선으로 철수시켰다.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의 급진개화파 인사들은 이 때를 임오군란 이후 청의 세력을 끌어들이 민씨 정권을 몰아낼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③ 1884년 10월 급진개화파는 우정충국 낙성 축하연을 이용하여 민씨 정권의 고위 관료들을 살해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청에 대한 사대 관계(조공)의 청산, 인민 평등권의 확립, 지조법의 개혁, 호조의 재정 관할, 내각 중심의 정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14개조의 혁신 정강을 발표하였다.

27. 제1차 갑오개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내각이 구성되었다.
- ② 개혁 추진을 위한 초법적 기구로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 ③ 일본에 망명해 있던 박영효를 불러들여 박영효·김홍집 연립 내각이 구성되었다.
- ④ 추진 정책으로는 공사노비법 혁파, 연좌율 폐지, 조혼 금지 등이 있었다.

정답 : ③

③ 제2차 갑오개혁에 대한 설명이다.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이 더욱 본격화되었다. 조선 주재 일본 공사로 부임한 이노우에는 흥선 대원군을 퇴진시키고(9. 20) 군국기무처를 폐지하였으며 일본에 망명해 있던 박영효를 불러들임으로써,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을 구성하였다(10. 19).

① 일본은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고 민씨 정권을 축출한 후, 흥선 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김홍집 내각을 성립시켰다(1894. 6. 21). ② 일본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초법

적 기구로서 군국기부처를 설치(1894. 6. 25)하여 총재관에 김홍집을 임명하였고, 정치·경제·사회 등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다(갑오개혁의 시작). 군국기부처에서 심의·통과시킨 의안을 국왕이 재가하면 국법으로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왕의 전제권이 상당 부분 제한되었다. ④ 제1차 갑오개혁 때 신분제를 타파하였고, 노미 제도를 혁파하였다. 또한 조혼(早婚)이 금지되었고, 과부의 개가가 허용되었으며, 고문과 연좌제가 폐지되었다. 이로써 죄인의 자손들도 관리로 등용될 수 있었다.

28. 아래 자료에서 ㉠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은) 소학교 교사로 초청을 받고 1886년 육영공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쳤다. 1905년 을사조약 후 한국의 자주 독립을 주장하여 고종의 밀서를 휴대하고 고국에 돌아가 호소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06년 『한국평론』을 통해 일본의 행위를 폭로하고, 고종에게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 회의에 밀사를 보내도록 건의하였다. 이후 조선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 외국인으로서 건국 공로 훈장 태극장에 추서되었다.

- ① 세계 각국의 산천, 풍토 등을 소개한 세계 지리서인 『사민필지』를 저술하였다.
- ② 기자로서 「자유를 위한 한국인의 투쟁」을 기고하였다.
- ③ 독일인으로 임오군란 이후 조선에 고문으로 파견되었다.
- ④ 영국인으로서는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의 ㉠은 '헨리크 길모어'이다.

- ① 헨리크는 세계 각국의 산천, 풍토 등을 한글로 간략하게 소개한 세계 지리서인 『사민필지』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 ② 영국 런던 「데일리 메일(Daily Mail)」의 아시아 특파원 로버트 맥켄지에 대한 설명이다. 그는 1904년 내한한 후 겪은 구한말의 폭압적인 현실과 일본의 만행, 그리고 탄압을 적나라하게 서술하였고, 1907년 군대 해산 직후 직접 의병들을 만난 뒤 「자유를 위한 한국인의 투쟁」을 기고하였다.
- ③ 뮐렌도르프(Möllendorff)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인 고문으로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의 내정간섭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재정 고문으로 파견되었다.
- ④ 헨리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술이다.

29. 아래 자료에서 일어난 항일의병운동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

오늘 병사를 일으키려는 것은 또한 자위하려는 것이 아니고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다. 만약에 아들이 어머니의 원수가 있으면 아버지의 명을 기다린 후 복수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찌 아들이 어머니의 원수를 갚는 것이겠는가? 지아비도 지어미의 원수를 갚는 것이다. (중략) 호연히 결속하여 동지와 더불어 약속하고 마음으로 복수를 맹세할 따름이며 삼가 여기에 게시한다.

-관동창의록-

- ① 유인석은 충주성을 점령하였으나 제천 남산 전투에서 패한 뒤 만주로 가 통화현에 기지를 건설하였다.
- ②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여 전력이 크게 증강되었다.
- ③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삼아 서울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 ④ 민중식 등이 이끄는 의병이 충주성을 점령하였다.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1895년 을미의병 거병과 관련된 창의문이다.

- ① 을미의병 당시 활약한 대표적인 의병장인 유인석 부대는 제천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여 한때 충주성을 점령하였다. 유인석 부대는 일본군 수비대와 관군의 충주성 탈환에 밀려 다시 제천으로 이동하였으나 남산 전투에서 패하였다. 유인석은 패잔병을 이끌고 단양으로 이동하여 전열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전력손실은 이미 회복이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에 유인석은 향후 의병활동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있는 통화현(通化縣) 오도구(五道溝)로 들어갔다.
- ② 1907년 정미의병과 관련된 서술이다. ③ 1907년 이인영을 총대장, 허위를 군사장으로 하는 1만여 명의 연합 의병 부대가 양주에 집결하여 서울 진공을 계획하였다(1907. 12).
- ④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전개된 민중식의 항일 의병 운동과 관련된 서술이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30. 조선 총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선 총독은 일본 육군이나 해군 현역(또는 예비역) 대장 중에서 임명되었다.
- ② 총독 아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경무총감과 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무총감이 있었다.
- ③ 철도국, 전매국, 임시 토지 조사국 등 각급 식민 행정 기관과 직속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 ④ 조선 총독은 내각 총리대신에 직속되어 조선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정답 : ④

- ④ 조선 총독은 일본 국왕의 직속으로 군대 통수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다.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아서 사실상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절대 권력자였다.
- ① 1910년 9월 공포된 조선 총독부 관제에서 조선의 총독은 현역 육해군 대장 중에 충원하도록 규정되었다. 총독은 문관직 행정관의 직책이지만, 조선의 총독으로는 무관을 임명하도록 규정된 것이었다. 1920년대 문화 통치로 식민 정책을 변경하면서 문관도 조선 총독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관제가 바뀌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하여 조선에 부임한 8대 총독은 모두 육해군 대장이었다. ②, ③ 조선 총독부 산하에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경무총감과 경찰 사무를 담당하던 경무총감이 있었다. 그 외에도 철도국, 전매국, 임시 토지 조사국 등 각급 식민 행정 기관과 직속 재판소가 설치되었으며, 총독부의 관리는 거의 일본인이 차지하였다.

31. 아래는 일본과의 조약을 계기로 자결한 인물이 남긴 유서이다. 이 조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대한 2천만 동포에게 남기는 글. 슬프다! 국치와 민욕이 이에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경쟁 속에서 모두 멸망하게 되었다. 무릇 삶을 요하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음을 기하는 자는 반드시 삶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찌 모르겠는가) (중략) 부디 우리 동포 형제들은 천만으로 분려를 배가하여 자기를 굳게 하고 학문에 힘쓰고 결심육력하여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면 죽은 자가 마땅히 땅속에서 기뻐 웃을 것이다. 슬프다. 그러나 조금도 실망하지 말(라)

- ① 법령 제정과 중요 행정 처분은 일본인 통감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 ② 황제마저 퇴위시킴으로써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편입시켰다.
- ③ 재정, 외교 등 각 분야를 감독할 외국인 고문들을 일본에서 파견하였다.
- ④ 조약 체결 등 일체의 외교권을 일본에 강탈당하였다.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반발하여 자결한 민영환의 유서이다.

④ 일제는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제국의 외교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게 하였다. 당시 을사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하는 것을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는 초대 조선 통감으로 부임하였다.

① 1907년 체결된 한·일 신협약에 대한 설명이다.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은 시정 개선에 대한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1조), 법령 제정과 행정상 처분은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2조), 고등 관리 임명은 통감의 동의를 받을 것(4조),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5조),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용병하지 말 것(6조) 등이 있다. ② 1910년 체결된 한·일 병합 조약에 대한 내용이다. ③ 1904년 체결된 한·일 의정서에 대한 내용이다.

32. 아래 자료의 ‘토문’에 대한 해석을 놓고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지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오라총권 묵극등이 성지를 받들어 번경을 답사하여 이곳에 와서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이 되고 동쪽은 ‘토문’이 되므로 분수령 위 둘에 새겨 기록한다.

-강희 51년-

- ① 일본은 철도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위 지역을 청의 영토로 인정하는 조약을 맺었다.
- ② 서전서숙, 신흥강습소 등의 설립으로 민족교육운동이 전개되었다.
- ③ 신한혁명당의 대동단결선언이 공식 발표된 지역이기도 하다.
- ④ 이범윤은 위 지역에서 포병을 양성하고 조세를 거두었다.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1712년 세워진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이다.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된 후 19세기에 이르러 토문강의 위치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조선과 청 두 나라 사이에서는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하였다.

③ 황제권을 포기하고 공화주의를 추구한 대동단결 선언(1917)은 중국 상해에서 발표되었

다.

①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을사조약, 1905)에서 청과 일본 사이의 간도 협약이 체결(1909)되면서 간도가 청의 영토로 귀속되고 말았다. 일본은 그 대가로 안봉선 철도 부설권과 푸순 탄광 채굴권을 차지하였다. ② 북간도 지역의 조신인 마을이자 독립운동 기지는 서전서숙(1906), 명동학교(1911), 중광단(1911), 간민회(1913) 등이 있었다. ④ 1903년 간도관리사로 임명된 이범윤은 간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관청을 설치하고자 간도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조세를 징수하였다. 그리고 간도는 대한제국의 땅이므로 청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33. 다음은 어느 독립운동 단체의 선언문에 대한 당시의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이 선언문 작성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혁명의 길은 파괴부터 개척할지니(라) 그러나 파괴만 하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하려고 파괴하는 것이니, 만일 건설할 줄을 모르면 파괴할 줄도 모를지며 파괴할 줄을 모르면 건설할 줄도 모를 지니(라) 건설과 파괴가 다만 형식상에서 모아 구별될 뿐이요 정신사에서는 파괴가 곧 건설이니. 이를테면 우리가 일본세력을 파괴하려는 것이, 혁명은 전쟁이요 폭동은 예술이다.

-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 ①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어려서 한학과 천주학을 공부하였다.
 - ② 러시아혁명의 영향을 받아 하바롭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을 결성하였다.
 - ③ 새로운 역사 이해의 방법론을 제시한 『독사신문』을 집필하였다.
 - ④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였다.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의열단 활동에 영향을 준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1923)이다.

③ 신채호는 민족주의 관점에서 한국 고대사에 관해 서술한 사론인 「독사신문」을 집필하였다.

①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에 대한 서술이다. 안중근은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어린시절에는 한학교육을 받았고, 17세 되던 1895년엔 천주교에 입교해 토마스(多默)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② 이동휘에 대한 설명이다. 이동휘는 대한제국 장교 출신으로 애국 계몽 운동과 의병 운동을 이끌었고, 국권 피탈 이후인 1913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의 권업회에서 활동하였으며, 1914년 이상설과 함께 대한 광복군 정부를 조직하였다. 이후 1918년 하바로프스크에서 한인 사회당(1921년 고려 공산당으로 개칭)을 조직하였기도 했으며 1919년 상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총리에 취임하기도 하였다. ④ 김규식에 대한 설명이다. 김규식은 파리 강화 회의에 신한 청년단 한국 대표로 파견되었고, 1919년 4월 상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자 외무총장 겸 강화 회의 파리 대표위원으로 임명되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해줄 것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 노력하였다.

34. 다음 중 독립투사와 독립운동사실로 가장 옳지 않게 연결 된 것은?

- ① 이봉창 - 일본천황 폭탄 투척 의거(1932, 농경)
- ② 김상옥 - 조선총독부에 폭탄 투척 의거(1921, 서울)
- ③ 오성륜 - 황포탄 의거(1922, 상해)
- ④ 조명하 - 천황의 장인 암살 의거(1928, 대만)

정답 : ②

② 의열단원 김상옥은 1923년 1월에 종로 경찰서에 투탄한 후 군경과 총격전 끝에 자결하였다.

① 이봉창은 한인 애국단(1931) 소속으로 1932년 1월 8일 일본 육군 관병식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일왕의 마차에 수류탄을 투척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③ 의열단원 김익상, 오성륜 등은 1922년 상해 황포탄에서 일본 육군 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저격한 후 체포되었다, ④ 1928년 대만 타이중에서 한인 청년 조명하가 일왕 히로히토의 장인이며, 일본 육군대장인 구미노미야에게 독검으로 부상을 입혔다.

35. 1945년 8월 15일부터 6·25전쟁 발발 이전까지 북한 상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일성, 부위원장에 조만식을 선출하였다.
- ②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방식의 토지개혁을 시행하였다.
- ③ 북한은 인민군을 창설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 ④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최신 무기를 갖추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정답 : ①

① 1946년 2월 중앙 행정 기관으로서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장에 김일성, 부위원장에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②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을 시행하였다. ③ 북조선 인민 위원회의 정규군으로서 인민군이 창설(1948. 2)되었고,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1948. 8. 15)된 이후 1948년 9월 제1차 최고 인민 회의가 개최되어 헌법이 제정되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남로당계와 연안계를 모두 포섭하여 조선 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이 수립되었다(수상 : 김일성, 부수상 : 박헌영, 홍명희, 김책). ④ 북한은 조선 인민군을 강화하였고, 중국 혁명에 참가하고 있던 조선인들을 인민군에 편입시켰다. 또한, 소련·중국의 지원을 통해 최신 무기를 갖추는 등 남침을 위한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36. 다음 중 유네스코(UNESCO) 지정 세계기록유산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물	(나) 새마을 운동 기록물
(다) 비변사등록	(라) 일성록
(마) 삼국사기	(바) 동의보감
(사) 목민심서	(아) 승정원일기
(자) 난중일기	(차) 대동여지도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③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 유산이 아닌 것은 (다) 비변사등록, (마) 삼국사기, (사) 목민심서, (차) 대동여지도이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 유산에 해당하는 것은 (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물(2011), (나) 새마을 운동 기록물(2013), (라) 일성록(2011), (아) 승정원일기, (자) 난중일기이다. 이외에도 조선왕조실록(1997), 훈민정음(1997), 직지심체요절(2001),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 조선왕조의례(2007), 한국의 유교 책판(2015),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2015)이 있다.

37. 아래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80만 광주 시민의 결의 ○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과도 정부에 있다. 과도 정부는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즉각 물러나라! ○ 무력 탄압만 계속하는 명분 없는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라! ○ 정부와 언론은 이번 광주 의거를 허위 조작, 왜곡 보도하지 말라! ○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 피해 보상과 연행자 석방이 아니다. 우리는 진정한 ‘민주 정부 수립’을 요구한다!
--

- ①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②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주장하였다.
 ③ 신군부가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을 계기로 발생하였다.
 ④ YH무역 사건을 계기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의원직에 제명되면서 발생하였다.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들의 쥔기문이다.

③ 전두환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학생과 시민의 시위에 맞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정치 활동 금지령, 휴교령, 언론 보도 검열 강화 등의 조치를 내렸다. 5월 18일 10시경, 계엄군이 등교 중이던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출입을 제지하자, 학생들은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시내에 집결하였고 이러한 학생들의 시위를 공수부대원들이 과잉 진압함으로써 시위가 광주 전체로 확산되었다.

① 1960년 4·19혁명과 관련된 서술이다.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로 인한 마산 시위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부통령에 당선된 이기붕이 사퇴하고 이승만이 하야하였다. ② 1987년 6월 민주 항쟁과 관련된 서술이다. ③ 1979년 8월 YH 무역 사건(1979. 8)을 계기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이 의원직에서 제명되었다. 이 사건은 부산 지역에서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지만, 시위는 순식간에 마산과 창원으로 번져나갔다(부·마 항쟁, 1979. 10)

38. 다음은 모두 같은 해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4·13 호헌조치	○ 이한열 최루탄 사망
○ 6·26 평화대행진	○ 6·29 민주화선언

- ①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이 신설되고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다.
- ②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 ③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 ④ 폭력배와 사회문란 사범의 순화를 명목으로 삼청교육대가 만들어졌다.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1987년 ‘6월 민주 항쟁’과 시기상 전후 연결된 사건들이다.

③ 호헌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6월 민주 항쟁’이 전개되자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저항 앞에 굴복하여 여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노태우의 이름으로 5년 단임의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다는 특별 선언을 발표하였고, 대통령 5년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 설치, 헌법 재판소 설치를 골자로 하는 9차 개헌(1987. 10)이 이루어졌다.

① 1987년 제9차 개헌의 내용에 헌법 재판소 설치가 명기되었으나 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행복추구권’의 신설은 1980년 제8차 개헌 때의 사실이다. ②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당시 전국에 계엄령을 내리고 국회는 물론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시켰으며, 1980년 5월 신군부는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 폐쇄, 정치 활동 금지, 대학의 휴교, 파업 금지, 언론 검열 강화 등을 포고하였다. ④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 전두환 정권 당시 폭력배와 사회 문란 사범의 순화를 명목으로 국보위가 군부대 내에 설치한 특수 훈련장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끌려가 매일 군대식 훈련과 힘든 노동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사망한 자가 부지기수였다.

39. 다음의 북한이 일으킨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 서해 연평해전 사건
(나)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라)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 ① (나) → (나) → (라) → (가)
- ② (나) → (나) → (가) → (라)
- ③ (다) → (나) → (라) → (가)
- ④ (나) → (라) → (다) → (가)

정답 : ①

① (나)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1968년의 사실이다. (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은 1976년의 사실이다. (라)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은 1983년의 사실이다. (가) 1999년 제1차

연평 해전이 있었고, 2002년에 제2차 연평 해전이 발생하였다.

40. (가)~(라) 시기의 경제 상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가)	(나)	(다)	(라)

- ① (가) - 기간산업의 육성과 면직물, 가발 등 경공업의 신장에 주력하였다.
- ② (나) -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 ③ (다) - 저금리·저유가·저환율의 3저 호황을 맞이하였다.
- ④ (라) -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을 타결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이루었다.

정답 : ④

④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타결되었으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2004년의 사실이다.

① 제1차(1962~1966), 제2차(1967~1971)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기간산업의 육성과 경공업의 신장에 주력하였다. ② 1970년대 제3차·4차 경제 개발 계획에 따라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였으며 1977년 1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였다. ③ 1980년대 중반 이후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3저 호황)로 물가가 안정되고, 자동차·가전제품·기계·철강 등의 수출이 많이 늘어나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